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경영학과	학 번	201**592	성 명	문규미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Heilbronn University	파견학기	2016년 1학기
소요경비	약 900만원				
주거	(학생전용) 기숙사형 빌딩				
룸메이트	無				
기숙사 내 한국인	1명(본인)				
파견대학 정보	<Heilbronn University> 캠퍼스는 두군데로 나뉘져 있습니다. 시티 근처에 있는 Europa 캠퍼스와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있는 sontheim캠퍼스가 있는데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필수로 듣게 되는 독일어 그리고 공과대학 수업 등은 주로 sontheim캠퍼스에서 듣게 됩니다. Europa 캠퍼스에는 경영계열의 수업이 주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캠퍼스에는 멘자라고 하는 학생식당과 도서관, 프린트와 복사를 할 수 있는 곳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식 비용은 비싸지 않으며 카드는 5유로를 지불하고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프린트물 인쇄를 해야할 경우, A4용지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학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카드에 40유로가 별도 충전되어 있으니 장당 0.04유로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International Office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 가게 되면 국제 교류부서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함께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학교생활, 비자 만들기, 일상생활, 수강신청, 은행 계좌 개설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시, 세세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우미들이 2명 정도 있습니다. 학기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 교류부서와 e-mail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에는 개인적인 학습에 몰두 했고, city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근처 neckar 강 주변으로 공원이 군데 군데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좋았습니다. 또한 gym이 있기 때문에 fitness center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gym에서 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여가 활동으로 긴 휴일이 있으면 주변 국가를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여행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조부모님
전공	Business Management
수업 스케줄	최소한의 수업과 흥미 위주의 과목만 신청했습니다. 독일어, 독일어 E-Learning,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Business Ethics를 수강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만25세 이하일 경우 (교환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별도의 국제학생증이 없어도 박물관 이나 미술관 등에 할인 및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ISIC카드 활용	활용하지 않았음
영어공부	영어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환 학생을 가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 를 하고 와서 이곳에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영어를 써보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별도의 영어공부도 좋겠지만, 여행이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 람들과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학교에 Business English라는 수업이 개설 되어 있습니다.
여행	Heilbronn이란 도시에 공항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가까운 Stuttgart 공항으로 가야하는 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이른 시간이 많아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city에 기차역이 있고, 미리 예매하면 기차나 버스가 굉장히 싸니까 독일이나 주변 국가를 다니는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한 학기 교통권은 학교에서 안내해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실 시, 학교 에서 서류를 받아 티켓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무실(city근처)에 직접 방문해야하며 재발급 비용은 10유로 정도 입니다. 버스 탑승 시, 불시에 티켓 검사를 하니 항상 소지 해야합니다.
날씨	독일 남부 지역이어서 비교적 날씨가 빨리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습하지 않아서 가디건 이나 자켓을 챙기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야합 니다.
해외인턴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도전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신	기숙사에 선발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독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2~3개월 전부터 서둘러 거주하실 곳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독일은 원룸이나 주거지를 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은 영어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은행 등 일상생활에서 영어의 기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또한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받게 됩니 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영어를 잘 구사하며, 독일어를 알아가는 기쁨

	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환 학생의 의무를 잘 수행하시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점	